

IT인력양성 수요자중심

고용 불일치 현상의 해소, 미래 수요에 적극적인 대비, 사업 효율성의 향상 등을 골자로 담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안'을 2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다.

개편안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사업의 단순 효율화 등 2대 전략과 7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09년~'13년까지 총 4,011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맞춤형 기초인력 3만5천명, IT고급인력 4천명, 융합고급인력 2천명을 양성한다.

금번 발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IT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이다.

대학원 지원사업의 비중이 '13년까지 49% → 67%로 확대된다. 학사 인력이 넘치고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 IT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해 학부 지원사업의 비중은 38% → 5%로 대폭 축소된다. '09년 학부 343.5억원/대학원 404.5억원 → '13년 학부 4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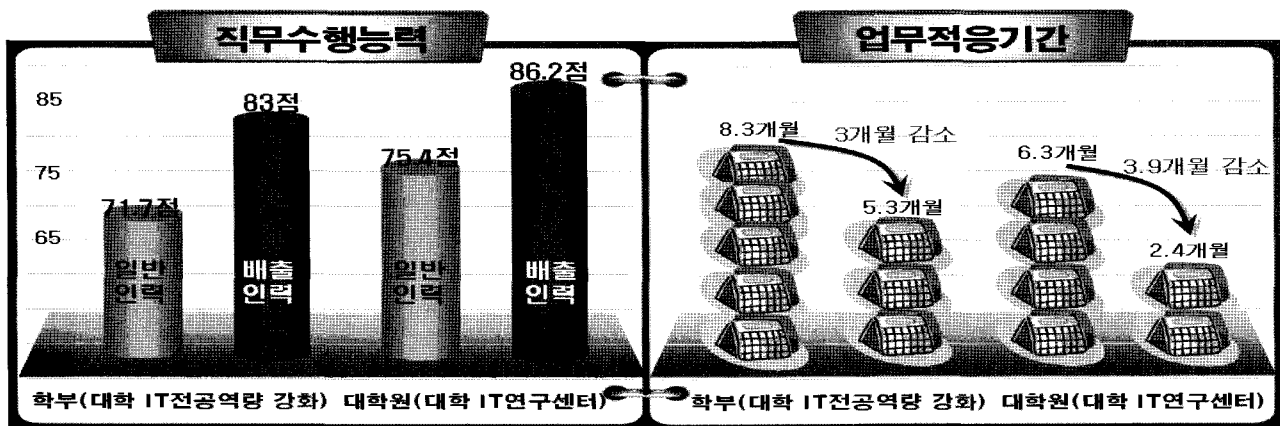
/대학원 567억원이다.

SW분야 석박사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SW 창의연구과정' 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원생이 소규모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기업이 최종 선정해 해당 학생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과제의 선택과 수행이 기업과 학생에 맡겨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다. MS社는 해당 사업에 금년 일정 금액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美본사 연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석박사 인력양성의 주축이었던 '대학IT연구센터(ITRC)' 사업은 그 규모가 46개 → 14개 센터로 축소된다. 연구 분야도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7대 HW로 특화된다.

둘째, 산학협력의 전면 도입과 자율적 노력 촉구이다.



【 09~13년 IT인력 수급전망(09년 한국직업개발능력원) 】

구분	SW 분야	HW 분야	기타 분야	합계
석박사 인력	△9,973	5,910	2,842	△1,221
학사 인력	1,041	21,081	△3,665	18,457

【 교수업적평가 현황 및 사례 】

- ⊗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은 낮게 평가
 - 특허등록에 대한 평가 점수는 SCI 논문의 1/4 수준
 - 인턴십, 프로젝트 지도 등은 SCI 논문의 1/60 수준
 - 졸업생의 취업 실적은 대부분 미반영

구분	논문		특허등록		기술료	SW개발	인턴십, 프로젝트등 지도
	SCI	국내학술지	국내	국제			
A대학(사립)	300점	200점	70점	150점	100만원당 10점	50점	5점/건
B대학(사립)	200점	100점	50점	100점	미부여	미부여	5점/건
C대학(사립)	80점	40점	30점	30점	미부여	미부여	미부여
D대학(국립)	40점	10점	13점	20점	기술이전 건당 10점	5점	미부여

* C대학 승진 최소요건 : 조교수 → 부교수(업적 누적 점수 600점 이상, SCI 논문 4편)
 D대학 승진 최소요건 : 조교수 → 부교수(업적 누적 점수 660점 이상, SCI 논문 2편)

‘산학협력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현직 교수들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업적평가 시에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을 우대하는 대학에는 사업자 선정시 가점이 주어진다.

가칭 ‘교수업적평가 개선’ 항목을 두어 사업자 선정시 최대 6점까지 가점이 부여(100점 만점이며, 현재 여성 가점이 4점 수준)된다.

대학 재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기업, 학생 등의 만족도가 높았던 ‘IT멘토링’ 사업이 수혜자를 3천명 → 9천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학생을 채용하면 월 1백만원의 보조금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교육도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비 20%를 부담하면 신입직원을 비트교육센터 등 민간교육센터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민간교육센터 활용’ 사업이 ’11년부터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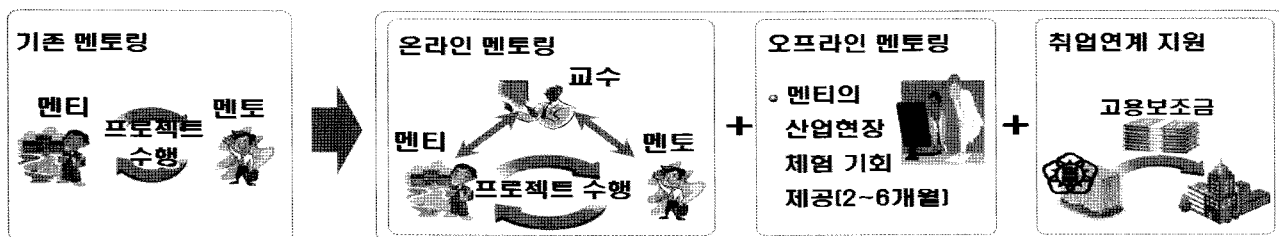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 근무시간 등 노동시장지표를 조사하여 노동시장 현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채용계획을 조사하여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 IT 주도권 확보이다.

해외에 안 가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美MIT 미디어 랩’ 처럼 우수 인재에 파격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명품인재양성’ 사업이 금년에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순수연구비로 연 25억원씩 10년간 지원된다. 금년에 1곳, 내년에 1곳 해서 총 2개가 운영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융합인력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사업이 금년에 신설

【 IT멘토링 사업 】



된다. 지난해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에 맞춰 10대 융합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기존의 학위 과정인 'IT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은 단계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통합된다.

내재, 엄정한 관리로 사업 효율성 제고이다.

준비된 대학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대학의 사업 수행능력 및 의지가 철저히 점검된다. 현장평가 도입으로 그간 서류심사 허점이 보완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점수 비중도 30~40%로 높아진다. 대학이 사업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사업비 매칭비율이 5% →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장실사가 매년 1회로 강화되

고 상시 감독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가 상반기에 구축된다.

온정주의 평가 문화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대 평가제가 전면 도입되고 사업의 중간탈락률도 최대 30%로 조정되었다. 반면, 우수 사업자에게는 사업 기간 연장, 인센티브 지급비율 25%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업의 구조조정, 변경, 신설 등을 금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5개 광역경제권별 지방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한다.

【 명품인재양성 해외사례 】

美MIT 미디어랩	美CMU ETC	싱가폴국립대 IDMI
1985년 설립	1998년 설립	2007년 설립
- 과학, 미디어예술 분야 30여개 연구그룹 운영	-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중심 연구	- 예술 & Creative, 혼합현실 등 8개 연구랩 운영
- 40여 명 연구교수 - 120여 명 석박사	- 40여명 연구교수 - 140여명 석사	- 100~200여명 연구진

【 사업관리체제 주요 변경사항 】

구분	현행	개편
사업자 선정	- 서류심사 -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 20% - 대학의 사업비 매칭 5%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사업수행능력 비중 30~40% - 대학의 사업비 매칭 10%
사업비 집행	- 현장실사를 사업기간 내 1회	- 현장실사를 매년 1회 - 사이버 신문고 도입
사업 평가	- 절대평가(탈락률10%) - 인센티브 지급비율 20%	- '절대+상대평가'(탈락률30%) - 인센티브 지급비율 25%

< 목 표 >

창의 · 실용적 인재공급으로 IT산업 재도약 기반조성

(맞춤형인력 3만5천명, IT고급인력 4천명, 융합고급인력 2천명 양성)

< 추진전략 >

1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공급

- 시장수요에 부응한 고급인력 양성
- 기업의 인력양성 참여 기회 확대
- 인력양성과 채용간 연결고리 강화
-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인적망 구축

2 인력양성사업 단순 · 효율화

-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정체성 강화
- 엄정한 사업 운영 · 평가 체계 구축
- 인력수급 통계의 신뢰 · 활용도 제고

< 기본 원칙 >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인력배출 치중 → 인력활용과 조화

산출단계 중시 → 과정단계 중시

現문제에 집중 → 미래에 적극 대비

【 IT인력양성 주요 사업('10년 기준) 】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특징
SW 창의연구과정	25	대학원생(단독/그룹)	연구활동비, 지도수당 등	• 대기업 중심의 창의 연구과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엔지니어링 과제로 구분
대학 IT연구센터 (ITRC)	276.8	IT대학원, 대학원생	연구비, 연구활동비 등	• HW중심 운영 • 민간 부담금 확대를 통해 책임감 제고
IT 멘토링	66	학생, 기업, 교수	멘토 활동비, 현장연수비 등	• 학생-기업-교수가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수행
민간교육센터 활용*	-	중소기업, 민간교육센터	교육비 보조	• 중소기업이 교육센터와 교육과정 협의後 추진
명품인재양성	26	IT대학원, 대학원생	연구비, 연구활동비 등	• 최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학습 환경 제공
IT융합 고급인력과정	50	기업, 대학 컨소시엄	연구비, 연구활동비 등	• 10대 융합산업 분야 중심 운영 • 애로기술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해 해결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	40	IT학과	연구장비, 재료구입비 등	• 서울어코드 취득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60	해외 대학생	학비, 체재비, 현장연수비 등	• 기존 학위과정을 '학위과정+현장연수'로 전환
기 타**	173.5	-	-	• 신규 선정 없음
합 계	717.3			

주1) '민간교육센터 활용' 사업은 '11년 추진(50억원)

주2) 미디어 융합 전공과정 지원, 대학 IT전공역량 강화, KAIST-ICU 통합 지원 등 '10, '11년에 각각 종료되는 3개 사업